

Eligibility of the affinity between alphabet codes and pronunciation drills*

김형엽
(고려대학교)

최근 영어교육의 교육방법론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욕구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질적인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영어의 기능은 단순한 외국어 수준을 벗어나 이제는 거의 공용어에 가까운 자격을 갖고 우리들의 생활에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적절하게 영어교육에 반영시켜야 하는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영어를 외국어로만 생각하고, 다른 외국어들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교육하는 방법들이 시대의 새로운 요구 앞에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교육에 반영되었던 영어교육론의 방법론들이 어떤 이유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한가를 짚어보는 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계통의 차이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도 아울러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이 주로 영어교육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방법론들은 한국어 환경에 이르러서는 본연의 교육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의 영어교육론 관련 전문가들은 독일어, 불어, 서반어 등을 모국어로 하던 사람들이 영어 습득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국의 현실 상황을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 본 연구논문은 2006년도 고려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것임..

결국 영어와 동일한 언어적 계통에 속하던 지역들에서 사용되던 ESL 방식보다 한국의 실제 상황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EFL 방식이 더 많은 각광을 받게 되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통합방식의 영어교육 방법은 영어를 가르칠 때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어와 유사한 문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언어를 빠른 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국처럼 영어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환경에서는 영어를 완전히 기초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방법이 반드시 적절한 교육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영어를 기초부터 습득해야 하는 교육 환경에서는 교육자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만 한다. 언어를 습득하는 여러 방향 중에서 해당 언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최선책은 습득 대상 언어의 음성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영어를 완전히 외국어로 취급하는 EFL 방식 하에서 교육 대상이 되는 언어에 익숙해지는 수단으로서 언어의 음성적인 특성을 먼저 익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목표도 해당 언어에 학습자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한다. 다시 말한다면 발음 교육이 무엇보다도 교육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해당되는 목표언어를 영어로 보면, 학습자는 영어의 음성적 특성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선결되어야만 하고, 이처럼 음성적인 측면을 토대로 하여 영어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음성교육과 연관성이 있는 여러 방법론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 바로 ‘Phonics 발음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론의 목표는 영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기간의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영어의 철자들만을 보고도 단어, 구, 문장 등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단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학습자들이 영어에 음성적으로 친숙해지고, 이런 상황을 근간으로 하여 영어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게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다름 아닌 영어 철자체계에 대한 통일된

용례 확립이 선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즉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는 공통된 영어철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영어의 언어적 상황을 볼 때 철자체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서양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영어가 발달하였던 영국에서 16세부터 일찍이 영어철자 체계에 대하여 연구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영어교육론에서 발음 부분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영어의 발음에 대한 특징을 교육하는 과정에 영어철자 체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발음에 중점을 두면서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교육하는 것은 교육목표를 극대화하는 근간이 되는 교육방식 구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Phonics 발음교육’ 방법을 필두로 하여 발음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추게 한 뒤에 영어의 다른 분야를 가르치는 것은 이미 영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친밀도를 소지한 학습자들에게 매우 높은 정도의 교육효과의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영어교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발음교육에 가장 중요한 기준요인이 되는 철자체계와 발음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하려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확연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1장에서는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철자체계와 발음의 연관성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보면서 생각해기로 하겠다. 2장에서는 철자체계와 발음에 대한 관련성이 영어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제시될 것이다. 특히 ‘Phonics 발음교육’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철자체계를 음소로 전환하는 ‘음소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영어의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되면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영어의 철자모습을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4장에서는 한국에 영어를 소개하는 교재들 중에서 영어의 철자체계와 발음의 연관성을 토대로 한 음성적 설명이 포함된 교재가 있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19세기 초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처음 체계적으로 소개한 영어문법서에 철자와 발음을 연관시킨 발음교

육 방법이 포함된 것은 매우 독특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Phonics 발음교육’이 한국인들에게 아직도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유사한 영어교육 방법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에 소개된 바가 있었음을 보임으로써 한국에서 효율적인 발음교육을 시행하는데 ‘Phonics 발음교육’이 영어교육 방법론으로서 역사적인 타당성도 아울러 갖추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1. 철자체계에 대하여

현대영어의 철자체계는 오랜 세월 동안 철자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16세기부터 시작된 영어철자 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현대 영어발음 교육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근대유럽 시대에 동일한 단어가 무분별하게 여러 모습으로 기록되는 상황에서 영어의 철자체계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철자운영의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즉 사람들이 동일한 단어를 말하면서도 철자로는 전혀 다르게 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분별하게 철자를 기록하는 관습을 교정하고 단어들의 철자형태를 고정화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당시 연구들을 주된 목표는 철자모습을 공통적인 모습으로 통일화함과 동시에 영어의 철자체계에 사람들의 발음 패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비록 현대에도 여전히 철자 모습이 발음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예들을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날처럼 철자가 상당한 수준의 표준화에 이르게 된 것은 이전의 학자들이 철자의 고정화와 발음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16세기부터 시작된 영어철자 체계에 대한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철자의 형태에 음소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발음을 철자체계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모음을 장음으로 발음하게 하려는 시도로서 ‘code’처럼 ‘e’를 단어 뒤에 붙이게 하는 것과 자음의

경우에 ‘c’가 때에 따라서 ‘k’와 ‘s’로 발음되는 것을 뒤이어 오는 모음의 성격과 결부시킨 것 등이 철자체계와 발음의 연관성을 제한한 대표적인 규칙들이었다.

1.1 철자에 대한 연구들

먼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16세기 영어 철자 형성 과정에 괄목한 만한 역할을 보여주었던 학자들을 통칭하여 ‘철자론자’(綴字論者)라고 부르고, 이들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속하는 학자들의 특징은 영어의 철자를 발음에 가깝게 맞추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다. 15세기 이후 영국이 새로운 국가 체계를 다지고 있을 무렵 영국의 국어였던 영어도 과거 불어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 언어로서 새롭게 위치를 다져가고 있었다. 다만 동일한 단어라도 사람들마다 너무도 다양한 철자로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단어의 철자 모습이 발음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시대의 영어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영어를 지목하여 ‘표의문자’라고까지 부르기도 하였다. 즉 단어의 철자만을 보고는 해당 단어의 발음을 추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영어의 철자 체계는 알파벳을 따른 것으로서 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표음문자이지만, 표의문자로까지 오해하게 했던 점은 바로 동일한 단어를 사람에 따라 너무 다양한 모습을 표기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¹⁾ 학자들 중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발음 교육을 위하여 철자의 공식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에 제시되는 도표는 철자체계를 연구했던 ‘철자론자’들의 계보를 제시한 것이다. 철자론자에 속하는 학자들은 두 그룹으로 분류될 있다. 첫째는 발음을 우선시 하면서 철자의 개혁을 주장한 ‘표음주의’ 철자개혁 학자들이고, 둘째는 기존의 철자를 토대로 철자의 개혁을 주

1) 영어에서 발음과 철자 모습이 상당한 괴리를 보여 준 상황을 가리켜 ‘각 단어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법칙을 소지하고 있다’(Every word is a law unto itself.)라고까지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기까지 하였다

장한 ‘전통주의’ 철자론자들이다.

(1) a. 표음주의 철자론자

i. 알파벳에 변화를 추구한 학자들

T. Smith(신 알파벳을 고안) → W. Bullokar(구 알파벳에 특수 기호를 첨가)

J. Hart(신 알파벳을 고안)

ii. 철자법 중심의 철자론자들

J. Cheke → W. Waad(신 철자법 실행자)

R. Laneham(신 철자법 실행자)

b. 전통주의

R. Mulcaster → F. Bacon → Dr. Johnson

1.2 표음주의 철자개혁의 선구자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어 철자표기가 표음적인 측면을 벗어나 표의적인 모습으로 변화한 상황을 지적하고 발음을 위하여 철자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 두 선두 그룹이 있었다. 첫째는 발음 교정 저서로 유명했던 *Abc for chyl dren* 과 E. Coote의 *English Schoole-Master*이며, 둘째는 철자문제를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던 J. Cheke, T. Smith, Bullokar 등이 여기에 속한다.

1.2.1 저서 중심의 철자 개혁

1.2.1.1 *Abc for chyl dren*

이 저서의 저자는 분명하지는 않다. 나중에 이 저서를 재출판하였던 Ewald Flügel은 1551-1561 년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E.J. Dobson은 저서 내용에 ‘Ave Maria’가 포함된 것을 토대로 하여 책의 출판시기를 1558년 엘리자베스 I 세의 즉위 이전으로 추정하였다. 책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최초의 영어 철자 저서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저서 내용 중 특기할 사안으로는 단어 내부에 있는 모음이 장모음임을 가리키는 방법으로서 ‘final e’(어말 ‘e’ 모음 첨가)를 제시한 것인데, 이 방법은 현대영어 철자체계와 발음에 대한 설명 방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대 영어 단어의 예로는 ‘made, ride, hope’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2.1.2 English Schoole-Master

‘Abe for chyldren’이 분량에서나 내용면에서 최초의 저서라는 점 이외에 학문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던 반면에 E. Coote의 저서는 16세기 이후 철자에 대하여 기술된 여러 저서의 표본이 되었다. 그는 영국 Cambridge에서 출생하여 Bury St. Edmunds에서 ‘grammar school’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저서를 저술하였고, 이 책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읽혀졌다. 1704년에 54판에 인쇄된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저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 1부에서는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음절 구조(nonsense syllable)를 주로 다루었고, 2부에서는 음절의 분리, 자음과 모음, 이중모음 등을 설명하였다. 저서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철자에 대해서 그가 주장하였던 사항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2) a. 철자개혁의 반대
- b. 표준영어의 필요성을 확인
- c. 후세대에 대한 영향

E. Coote가 발음과 철자를 일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철자개혁이 불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마도 본인이 당시 영어교사였기에 교육적 측면에서 철자를 새롭게 변형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철자 개혁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은 나중에 R. Mulcaster로 이어지며, 이미 계보에 지적하였듯이 이후 Dr. Johnson을 거쳐 현대에 이르면서 영

어철자 연구의 정통적 노선을 인정받게 된다.

표준영어에 대한 E. Coote의 관심은 방언이 바로 철자의 혼동의 원인으로 보았던 것에 근원을 둘 수 있다. 그는 특히 방언을 ‘세련되지 못한 원시적 발화’로 명명하였고, 따라서 방언의 독특한 특색을 교육적 언어 모습으로 수정하는 공식어로의 전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영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어란 누구라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특색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영어를 말한다. 바로 이 공식어가 현대 표준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후세에 대한 영향력은 우선 내용면에서 발음은 같지만 철자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을 집약함으로써 후대에 단어를 기술하려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표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커다란 공헌을 한 점을 의미한다. 또한 그의 연구 내용을 보면 설명 방식이 학문적이면서 나름대로 독창적이기 때문에 향후 Hodges, Butler, Cooper와 같은 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E. Coote의 연구내용을 자신들의 연구에 크게 반영하였다.

1.2.2 알파벳 변화 추구자들

철자개혁은 16세기를 거쳐 17세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대에 철자의 개혁을 둘러싼 두 부류의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John Cheke, Thomas Smith를 중심으로 한 연구그룹이 있었고, Stephen Gardiner(Winchester의 주교)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연구그룹이 있었다.

1.2.2.1 Thomas Smith

T. Smith의 논문인 *De recta emendata Linguæ Anglicæ Scriptione Dialogus* (= A Dialogue on the Correct and Amended Writing of the English Language)은 그의 주장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T. Smith의 ‘표음적 표기의 정당성’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16 세기 당시의 철자 상황은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던 모습이였다. 그는 특히 당시의 철자 상태를 불안정,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추악, 어리석음, 부정확, 통일성 결여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철자의 통일성을 위하여 혁신적인 철자법(orthography)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 Smith는 자신이 설명에 사용하였던 몇몇 특정 술어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후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 (3) a. 문자(litera) → 분절되는 음성 단위로서 최소 부분을 형성한다.
- b. 분절음(articulata vox) → 동물의 소리와 다른 인간만의 소리를 가리킨다.
- c. 음절(syllaba) → 문자들이 모인 형성한 단위이다.

위에 제시된 설명에 의하면 현대 언어학의 음운론에서 제시한 음소와 음절에 대한 정의 및 음성에 대한 정의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T. Smith 자신이 동물의 소리를 언어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동물의 소리가 분절음으로 표기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언어에 대한 정의로서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또 다른 학문적 공적으로는 ‘언어계약설’의 계통을 따랐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이미 플라톤의 Cratylus에 언급된 바 있는 내용이다. 비록 당시 유럽의 국가들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동일한 문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되는 특수 음가를 보이는 사실을 언어의 약속을 증시한 언어계약설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발음과 기록은 모두 언어계약설의 특성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는데, 발음을 일차적으로 보고 기록을 이차적인 것으로 분리한 것이 동일한 문자가 다르게 발음될 수 있는 이유임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T. Smith가 발음을 상당히 중시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학문적 경향은 향후 르네상스의 문법 연구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그가 발음을 중시한 것은 영어 발음을 연구하면서 라틴어에 없는 발음을 어떻게 표기하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에도 반영되었다. 우선 발음기호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 발음에 필요한 새로운 알파벳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는데, 모든 영어 발음 기호의 수를 합하여 36개의 발음을 제시하였다.²⁾ 이 숫자는 후일 현대 음성학의 기틀을 마련해 준 주요 음성학 중 한사람인 C.C. Fries가 제시한 35개의 음소와 비교할 때 시대를 초월한 상호 유사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6세기 당시 이미 음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음소를 제시한 것은 현대 언어학으로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2.2 William Bullokar

16세기경 철자에 대하여 가정 정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서 T. Smith, J. Hart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학자는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저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 a. *An Short Introduction or guiding to print, write, and reade English speech*(1580)
- b. *The Book at Large*(1581)
- c. *Brief grammar*(1586)
- d. *Pamphlet for Grammar*(1586)

W. Bullokar는 영어에 있는 다양한 발음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자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문자에 ‘특수보조기호’(diacritics)를 첨가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처럼 보조기호를 제안한 이유는 당시 영어 발음 표기하는 것이 기존의 24자로 구성된 문자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제시된

2) T. Smith는 자신의 저서인 *De recta emedata Linguae Anglicae Scriptione Dialogus* 말미에서 자신이 제시한 36개의 문자로 영어에 존재하는 소리를 대부분을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36개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신 알파벳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신 알파벳은 배우는 사람들을 상당히 혼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이었다. 따라서 한 글자 하나의 소리(一字一音)의 완벽한 구성을 위하여 알파벳을 새로 고안하는 것보다 기존의 알파벳에 특수보조기호를 첨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믿었다. 그의 영어철자 및 발음에 대한 입장은 그의 저서 *The Book at Large*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눈여겨 볼 내용이기도 하다.

- (5) a. Bullokar는 현대영어에 가까운 발음을 영어음운사적 방법으로 기술하였는데, J. Cheke에 의하면 vernacular language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런 내용을 일컬어 ‘advanced 또는 vulgar’ 발음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는 경우에 따라 방언도 포함되었다.
- b. 표준영어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 c. 철자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사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최초로 주장하였고, 영문법에 대한 저술을 남긴 최초의 학자이기도 하다.

1.2.2.3 John Hart

이 학자는 많은 후세의 학자들에 의하여 ‘근대시대의 최초 영어 음성학자’로서 알려져 있다. J. Hart가 저술한 내용들 모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 (6) a. *The opening of the unreasonable writing of our english tounge*(1551)
- 영어의 비합리적인 기록방식을 언급
- b. *An Orthographic*(1569)
- 철자법을 다루었으며, T. Smith의 영향 수용
- c. *A Methode or comfortable beginning for all vnlearned*(1570)
- 바른 영어 교육을 제시

J. Hart는 16세기 영어의 표기 현황을 보면서 혼란이 너무 가중되어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 마치 암호를 읽는 것과 같은 상황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자일음의 표음주의’를 제안하였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철자를 발음에 따라 더해가면서 36개까지 제안했던 T. Smith의 방식보다는 일정 수의 발음기호를 정하고, 이 기호를 바탕으로 단어를 읽어가는 방식을 주장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J. Hart를 최초의 음성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7) a. 요소(element) → 분절음을 가리킨다.³⁾
 b. 문자(letter) → 발음으로만 인식되는 요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준 영어에 대한 관점은 E. Coote와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J. Hart는 표준영어로써 자신이 주로 활동하였던 궁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를 기준으로서 제안하였다. 비록 방언에 대한 인식이 없지는 않았지만, 방언이 경우에 따라 표준어를 방해할 때에는 주저 없이 버리고 궁전에 있는 학식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사용하던 영어를 표준어로 결정하였다.⁴⁾

언어학적인 측면으로 J. Hart의 업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후일 많은 학자들이 영어를 연구하는 중요한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 (8) a. 영어의 음운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학자
 b. 음성학자로서 조음에 대하여 본격적인 서술을 시도
 Lungs or Lights, Arteries, Throte, Uvula, mouth, tongue, Teeth and Lippes
 c. 혀, 치아, 입술이 조음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
 d. 모음을 정확하게 정의

3) 여기서 분절음은 T. Smith의 *articulata vox*와 동일한 개념이다.

4) 궁전에서 학식 있고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 영어를 가리켜 ‘영어의 정화가 사용되고 있다’(the flower of the English tongue is used)라고 표현하였다.

전모음(front vowels), 후모음(back vowels)

- c. 장모음과 단모음을 에너지의 양에 기준하여 구분
장모음이 단모음보다 두 배 이상의 길이로 발음한다는 내용을 지적
- f. 이중모음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였다. → diphthong과 diagraph를 구분
- g. 자음을 구분하여 폐쇄음(stops)과 계속음(continuants)를 구분
- h. 유성모음과 무성모음을 구분하여 전자를 'sounds'로 후자를 'breaths'로 분류

1.2.3 철자법 중심 철자론자

1.2.3.1 John Cheke

이 학자의 공헌은 우선 그리스어에 대한 본인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발음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어를 크게 둘로 분류하였다.

(9) a. vernacular language

→ 근대언어로서 발음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

b. classical languages

→ 고대어로서 발음이 이미 고정화되어 있다.

J. Cheke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표음주의자로서 하나의 문자는 하나의 음성만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문자가 처음 고안될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문자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특정 문자에 대하여 나름대로 발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변형된 발음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16세기에 살던 사람들이 고대시대의 단어를 발음하려면 음성적 변화가 발생하기 발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발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별도의 음성기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어의 철자와 발음 관계를 설명하면서 J. Cheke는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세 가지의 설명을 제시하였다.

(10) a. 장모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모음을 반복하여 표기

- $\bar{e} \rightarrow ee, \bar{o} \rightarrow oo, \bar{i} \rightarrow ii, \bar{a} \rightarrow aa, y:(iu) \rightarrow uu$
- b. 단모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모음 뒤에 오는 자음을 반복하여 표기
Godd
- c. 단어 중간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도록 묵음 ‘e’를 어말에 첨가
made, hope

1.2.3.2 William Waad

T. Smith와 J. Hart의 영향을 받아 표음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표기 방식을 고안하였으며,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한 발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W. Waad의 기록은 T. Smith와 J. Hart보다 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다만 스스로 저작을 남기지 않은 터라 W. Waad의 연구 결과는 부분만이 다른 학자들의 기록에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1.2.3.3 Robert Laneham

이 사람은 철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보여 주었다. 자신이 상인이기에 당시 상인들이 사용한 어법을 기초로 하여 편지 기술에 자신이 고안한 발음 표기 방식을 응용하였으며, 어떤 학자는 R. Laneham의 방법이 J. Cheke보다 낫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1.3 전통주의자 Richard Mulcaster

누구보다도 영어를 깊이 관찰, 분석하여 철자의 개혁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그의 저서로서 *The First Part of the Elementarie*가 1582년에 출간되었다. 1 부는 초등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 부는 교육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 읽기와 쓰기를 우선시하여 이 부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철자법을 전제하였으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분류되어 철자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부분과 철자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문법을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R. Mulcaster는 철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발음기호를 설정하여 실험적으로 응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자법을 그대로 따르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이 점에서 그는 표음주의자들과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현존하는 철자법이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의 것으로 가정하고 이런 상태로 오기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11) a. 제 1 단계

우선 상호소통을 위하여 음성이 작용하는 단계로서 언어 행위를 현재처럼 하기까지 세련된 과정을 아직 겪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특히 소리와 문자는 언어계약설에 근거하여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며 표음주의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b. 제 2 단계

음성이 독자적으로만 존재하는 단계를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관습이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서 각 문자의 소리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변화를 시작한다. 또한 이 변화의 주된 요인은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르기도 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이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c. 제 3 단계

일명 ‘인공’ 단계라고도 하는데, 소리의 변화가 너무 많아 이성과 관습 또는 소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막기에 역부족한 상태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규범은 당시의 상용되는 모습에서 찾기보다는 과거 최적의 시대를 선택하여 당시에 소리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때 선택되는 최적의 시대의 소리 방법을 ‘인공’이라고 일컫는다.

R. Mulcaster는 비록 영국인이 아니었지만 영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였다. 따라서 영국인들보다도 영어의 어휘 부족 현상, 방언의 횡행, 표현의 거침 등을 무척 걱정하였다. 그가 이처럼 영어에 대하여 과할 정도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2) a. 영어는 오래 된 언어이다.⁵⁾
 b. 영어에 차용된 단어가 소속되었던 언어들도 오래 된 언어이다.
 c. 영국인들이 통상을 중시하였기에 영어는 세계 각지에서 중요하게 되었다.
 d. 여러 외래어가 첨가된 언어로서 표현이 풍부하다.

2. 현대 영어의 철자체계에서의 영어 발음학습

앞부분에서 영어의 발음교육을 위해서 영어의 철자 체계에 통일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철자체계의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이처럼 고정화와 통일화의 과정을 겪은 영어철자 체계가 영어 발음교육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특히 알파벳과 영어 발음교육의 관련성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영어 발음을 대표하는 음소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음소와 영어 철자체계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16세기 이후 오늘 날의 모습으로 정비과정을 거친 현대영어 내의 알파벳 체계가 영어 학습자들에게 발음으로서 제대로 교육되기 위해서는 철자와 음소의 관련성이 아주 자세하게 분석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인 철자체계 연구 결과들이 결국 음소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영어발음 교육에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밝혀져야 함을 의미한다.

2.1. 알파벳 체계와 음소에 대하여

영어의 알파벳은 표음문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문자가 소리를 가장 근사하게 표시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의 시작은 철자와 발음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초기 영어교육 과정의 주된 내용이었다. 특히 영어 학습과정 중에서 발음을 바탕으로 한 읽기 교육은 알파벳으로

5) 오래 된 언어라는 의미는 당시 고대영어를 연구하려는 학문적인 열기에 힘입어 언급한 내용이었다.

토대로 한 철자와 발음을 상호 연결시키면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런 교육방식의 장점은 영어가 속하는 언어계통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영어에 친숙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눈으로 보는 철자들을 발음으로서 재현할 수 있게 되면, 학습자는 훨씬 영어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언어습득에 더욱 관심을 보이게 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런 교육방법 가장 잘 부합되는 방식을 찾다보면, ‘Phonics 발음교육’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학습자는 발음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알파벳 철자들과 이들 철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단어, 구, 문장 등의 철자들을 발음할 수 있는 요령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Phonics 발음교육’ 방법을 따르더라도 주의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어들을 형성하고 있는 철자들의 구성이 해당 단어의 발음을 항상 동일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철자와 발음이 상이성은 (13)에서 예시된 단어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제시된 예들은 모두 한 개의 철자가 두 개 이상의 발음을 대표하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예들 오른 쪽에 음성기호를 표기하여 소리의 차이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3) cap, car, corn	[k]	
cent, city		[s]
game, give, goal	[g]	
general, giant, Roger	[dʒ]	
example, exit	[gz]	
expect, exercise	[ks]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어의 알파벳 철자들이 모든 영어발음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14)에 예시된 용례들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14a)는 모음의 예를 모은 것으로서 철자는 동일하지만 발음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모음이 실제 존재하는 모음의 수보다 많은 발음을 표현하는 것은 영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에 존재하는 모음의 철자

는 숫자로 보았을 때 5 개 정도로 구성된 것이 보통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a/ /e/ /i/ /o/ /u/가 모음을 대표하는 기본 모음 구조이다. (14b)는 자음의 경우로서 한 가지 음성발음을 위하여 두 개의 자음이 합성된 경우들을 모은 것이다. 이들 예에서 /th/ /ch/ /sh/ 들은 발음을 위하여 두 개의 자음이 합성되는 것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14) a.	[æ]	-[ei]	[i]	- [ai]	[i:]	- [e]
	can	cane	bit	five	bean	head
	mad	made	fin	nine	leaf	mead
b.	three	this	chorus	church	ship	
	birthday	rather	school	preacher	fishing	
	earth	worthy	monarch	teach	dash	

이처럼 영어의 철자 형식을 볼 때 철자와 발음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 역사 중 16 세기경에 단어의 철자 모습이 일정하지 못한 것은 바로 철자와 발음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차이점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영어 학자들이 철자를 발음 패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리게 된 것도 철자와 발음이 상호간에 존재하는 불일치의 특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철자와 발음을 일대일 대응 관계로만 보고 발음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발음능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철자에만 의지하여 발음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은 영어교육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발음교육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철자에 대한 지도수업과 함께 음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즉 (13), (14)에서 보였듯이 ‘[]’ 내부에 표시된 음성표기는 사실 영어에 존재하는 알파벳철자는 아니지만, 이들 소리 정보에 의거하여 같은 철자들이라고 다른 의미를 가진 것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음성기호를 ‘발음을 위한 알파벳 철자’로 규정한다면, 발음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음운론 이론에 의하면 실제의 알파벳 철자처럼 시각적으로 표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

각으로라도 의미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음성표기들은 ‘음소’로 분류되었다. 알파벳 철자와 더불어 음소를 인지할 수만 있다면, 학습자가 발음을 토대로 영어를 이해하는 수준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발음교육에 음소도 아울러 인지하도록 지도하는 교육방법을 영어교수법 방법론에서는 ‘음소인지’(phonemic awareness) 방식으로 명명하였다. 음소인지에 대한 접근 방식은 영어의 경우에 알파벳 철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철자를 통하여 발음을 인식하는 ‘Phonics 발음교육’이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결국 ‘Phonics 발음교육’ 방식과 ‘음소인지’ 방식은 상호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효율적인 발음교육이 수행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2. 영어의 음소와 음소인지

음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안한 ‘음소인지’ 방식은 영어읽기교육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NRP(National Reading Panel: 2000)의 보고서에 연구의 방법과 목적이 잘 설명되어 있다. 보고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음소인지’를 언어능력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학습자가 단어의 발음에서 음소들을 수월하게 인지하고 이들 음소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의미하였다.⁶⁾

다만 음성인지는 아무 노력 없이 충분히 습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경험 축적만으로는 완전히 습득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음소인지를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들은 음성인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 사항들이다.

(15) a. 음소 분리

단어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소리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대답하게 한다.

6) Phonemic awareness refers to the ability to focus on and manipulate phonemes in spoken words.

- Question: ‘penguin’에서 첫 번째 소리를 말해 보시오
 Answer: /p/
- b. 음소 확인
 여러 다른 단어들을 제시하고 공통적으로 포함된 소리를 인식하게 한다.
 Question: ‘bike’ ‘boy’ ‘bell’에서 같은 소리는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Answer: /b/
- c. 음소 분류
 세 개 또는 네 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일치하지 않는 소리를 찾게 한다.
 Question: ‘bus’ ‘bun’ ‘rug’ ‘bud’ 중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고르시오
 Answer: /rug/
- d. 음소 조합
 차례로 발음되는 개별 소리들을 듣고 이들을 단어로 조합하는 것이다
 Question: /s/ /k/ /u/ /l/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Answer: /school/
- e. 음소 분절화
 주어진 단어의 발음을 듣고 단어에 포함된 소리들 각자를 확인하여 제시하게 한다.
 Question: ‘ship’의 단어에는 몇 개의 음소가 있을까요? ()
 Answer: 3 - /ʃ/ /i/ /p/
- f. 음소 생략
 단어 중에서 특정 음소를 생략하게 하고 남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Question: ‘smile’에서 /s/를 제거하면 무엇이 될까요?(‘mile’)
 Answer: /mile/

영어발음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교육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잠시 영어발음 교육에 대한 음성인지 방식의 기여도를 생각해 보면, 특정 교육방법이 학습능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실제로 판단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ffect size’ 수치를 통하여 음소인지의 영어발음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통계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실험그룹 사이의 비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원하는 방법들의 교육목표에 대한 효율성 정도를 측정한다. 우선 두 그룹(A 그룹, B 그룹이라고 하겠다)을 분리할 때 A는 조사

하려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 과정을 겪지만, B는 어떤 과정도 겪지 않은 채 실험의 피대상자로서 비교과정에 참여한다. 특정 조건에 대하여 이들 두 그룹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 통계의 주요 요령이다. 예를 들면 읽기 실력 향상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A는 음소인지 교육을 받게 하고, B는 어떤 조정과정 없이 실험에 임하게 하여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계산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점의 정도가 음소인지가 읽기실력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조사된 'effect size'를 보면 음성인지가 실험대상자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헌도는 대략 0.86 정도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영어교육에서 결과수치로 제시된 정도를 볼 때 0.80 이상을 관련성이 있는 결과로서 최대치로 간주되는 일반적인 분석 경향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보면, 음소인지가 영어발음 실력 향상에 대하여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음성인지를 습득하게 되면, 읽기에서는 0.53, 철자법에서는 0.59의 수치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의 긍정적인 현상을 판단하는 기준수치가 보통 0.50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 수치들도 평균 이상으로서 음소인지가 영어교육의 읽기와 철자법 인식에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실험결과에 따르면 음소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음소인지 방식이 학습자들에게 읽기와 쓰기 학습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2.3. 알파벳 철자와 음소 전환

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철자쓰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실영어 학습의 방식에 의하면 교사가 의미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단어를 기억해 내고 종이 위에 해당 단어를 적어서 답을 한다. 이 때 기록되는 단어의 형태가 바로 철자로 구성된 결과이다. 학생들이 주어진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기억하는 과정은 음성적인 정보에 의지하게 보다는 철자체계에 의존하여 단어의 모양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영어단어암기 방식은 마

치 한문글자를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태적 모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발음상의 정보를 묻게 되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들에게는 영어발음도 별도로 기억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들은 단어의 철자만 외우기에도 상당한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각 단어의 발음정보는 별도의 암기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어암기는 단순히 모양만을 외운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단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형태적 정보가 의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발음이 결부되지 못한 단어에 대한 기억 향상은 영어의 읽기를 증진하는데 별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영어의 단어를 보면 철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철자에 대한 지식이 발음 부분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특히 ‘knight, comb, though’의 단어에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음되지도 않는 철자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발음과 철자의 차이는 발음과 관련하여 혼동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어의 철자를 바탕으로 발음을 알고자 한다면, 단어의 철자구조를 발음을 위한 음소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음소구조는 철자를 발음을 위하여 재조정된 것으로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학습자들에게 영어의 발음구조와 철자규칙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knight’를 보면 ‘k’가 재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유는 발음으로만 보면 이 철자는 표기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i’는 ‘ai’의 두 음소로 전환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gh’는 묵음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t’는 음소로 표시된다. 그래서 ‘knight’의 철자체계는 /nait/처럼 음소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들 음소표기가 바로 ‘knight’를 음소인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기초정보가 된다. 또한 /nait/와 같은 음소표시기가 철자구조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음소표기로부터 철자로 회귀하는 철자체계 되집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표준 영어와 철자체계의 연관성

3.1. 세계의 변화와 영어의 현황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늘 하나의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래 사회 구조 속에서 영어는 과연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어가 우리가 이미 접하였고 앞으로도 그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새 시대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영역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실행된 여러 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영어가 단연코 어떤 언어보다도 탁월하리라고 대답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경제·과학기술·문화면에서 영어의 사용 영역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론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영어가 지금 보다 앞으로 자신의 적용 영역을 늘여 가기보다는 오히려 줄여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접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영향력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미래 시대의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란 경제학자, 문화이론연구가, 정치과학 연구자들이 예상하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세계질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질서가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통신 문화에 혁신적 방식이 대두된 현상에 있다고 본다. 컴퓨터 통신의 총아라고 여겨지고 있는 인터넷 체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였다. 이처럼 새로이 나타난 통신 연결고리는 ‘WEB’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생활상 아주 다른 모습의 국제 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세계를 지배할 이와 같은 국제 교류 양식은 새로이 구축되고 있는 정보 전달 방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어는 국제적 상호 소통 및 사업상의 거래를 위하여 매개 언어로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통신 방식은 어떤 다른 언어보다도 영어를 모국어나 공용어로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방식을 도입하여 부강한 나라의 건설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상관없이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둘째는 개인과 사회가 격리된 채로 상호 연관 관계가 없던 시대와는 달리 미래 시대에는 개인, 가족, 사회와 같은 국가를 형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따로 분리된 구획선이 없는 ‘세계화 추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한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시공적으로 제한된 환경에 맞추어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힘으로는 보잘 것 없는 개인이라도 자신 보다 훨씬 규모 면에서는 상위에 있는 어떤 조직과도 교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가 한정된 지역에만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넓은 세계를 활동 무대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나라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 위하여 스스로를 다스리고 추스르는 것 이외에도 주변 국가들의 형편을 살펴야만 하는 상황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아시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비록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몇몇 국가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세계 경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의 돈을 출자하여 해당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함께 동참하였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원만한 경제 운영을 위하여 수출과 수입을 조절하는 국제무역조절기구를 발족하였는데 이 모든 일들은 개별적인 단위가 주위의 모든 다른 단위와 함께 고려되어야만 하는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는 이처럼 개인, 사회, 국가를 완전히 개방하는 변화 추세에서 모든 관련 요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세력들은 영어를 자신의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적 환경을 지닌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선도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국제연합(UN)과 같은 모임을 주선

하고 국제적 여론을 주도해 가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표들도 영어를 자신들의 활동을 위한 주요 언어로서 선택하고 있다. 비록 몇몇의 언어들이 영어와 함께 공식어로서 채택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작 회합을 이끌어 가는 자리에서는 영어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알 수 있다.

3.2. 영어 사용의 세계 현황과 표준 영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로서 위치를 점하고는 있지만, 영어가 어떤 모습으로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는 아직 확실하지 못하다. 비록 여러 지역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영어가 일정한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리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영어가 하나의 획일화된 모습으로서 여러 지역에 사용되리라는 단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영어의 표현 방법들이 지역에 따라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영어는 사용하는 국가의 지역적 상황에 따라 상당히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모습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비록 표준화된 영어를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설정하여 나름대로 영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표준화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우위성을 점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어는 어떤 모습으로 세계에서 사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영어의 모습은 분열된 양상으로서 다양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각 지역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화자들은 영어를 편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독립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영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들만의 특징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모

습으로 영어를 변형시키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비록 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서 영어를 사용하지만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표준화된 영어란 마치 표준어로서 설정된 영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오해를 덜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서의 영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UN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대표로 나간 사람이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을 주저 없이 사용한다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의미적으로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영어란 어떤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는 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가장 먼저 영어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인쇄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인쇄물로 발표된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여러 인쇄물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표준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영어를 표준화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기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향상된 미디어의 확장 기술은 국제적으로 안정된 영어의 모습을 설정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영어교육산업도 영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영어교육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외국의 출판기업들은 미국식 영어를 중심으로 하여 교재를 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어 학습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미국식 영어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된 교재가 주로 선택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결국 이들 교재를 통하여 영어발음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은 결국 한 방향으로 정리된 철자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은 영어철자를 세계적으로 고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3.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

세계 문화 현상을 보면 미국식 영어가 훨씬 강하게 퍼져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식 영어는 과학기술, 무역, 운수, 금융, 통신, 문화, 예술들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통신은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모든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되어 버린 윈도우시스템은 미국 마이크 로소프트사에게 개발한 것으로서 미국식 영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초기에 인터넷에 나타난 웹사이트는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든 웹사이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국제무역을 수월히 하기 위한 취지로서 새로이 구성된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및 금융들이 조정되면서 미국 중심의 영어가 더 강하게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문화와 예술도 미국식 영어를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이 분야와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영화와 음반 등은 미국식 영어를 지역적 계층뿐만 아니라 연령적으로도 널리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디즈니 회사의 애니메이션들은 연령을 초월하여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비록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가 유럽과 아시아 등의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영화 내용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은 확실히 미국식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4. 한국에서의 영어철자 체계 소개

4.1. English-Korean 학습 교재

한국에 영어가 소개된 여러 경로를 살펴보려면 H.G. Underwood가 저술한 『韓英文法』이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Underwood는 일본

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면서 당시 일본에 출판된 W. Imbrie의 English-Japanese Etymology를 토대로 하여 한국에서 최초의 영어 및 한국어 비교 문법서를 완성하였다. 일본에 이미 출판된 W. Imbrie의 문법서는 영어문법을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당시 서양에 주로 분포되어 있던 영어문법을 근간으로 하여 저서를 구성하고, 예문으로 제시된 영어 표현들 옆에 일본어 해석을 첨가하여 전체적인 저서의 내용을 전개하였다. Underwood도 이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한국인에게 영어를 소개하는 영어문법서를 저술하였는데, 저서에 소개되는 문법내용에 따라 제시되는 영어 예문들은 W. Imbrie가 사용한 예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비록 『韓英文法』이 영어문법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저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미 출간된 일본에서의 영어문법서를 그대로 본 따고 나아가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독창적 저술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15년 H.H. Underwood가 아버지의 저서를 수정하면서 제목을 『鮮英文法』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저서 전체 내용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중의 저자가 기존의 문법서를 수정, 증보하면서 최초 저서의 토대가 되었던 W. Imbrie 저서 구성 방식과 다른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은 바로 영어 발음구조를 소개하면서 한국어와 발음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한 음성학 부분의 첨가한 시도 과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음성학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음성적 특성을 대조하면서 설명한 방식은 당시 한국에는 생소한 방법으로서 현대음성학이 한국에 소개된 최초의 저서라고 볼 수 있었다. 영어문법서를 다시 수정하면서 음성적인 측면을 문법서 내부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韓英文法』의 한계가 더 이상 W. Imbrie 문법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 W. Imbrie는 자신의 문법서 앞부분에 일본어의 발음에 대하여 일본어 자음·모음 도표를 영어 표기를 이용하여 제시한 것이 음성학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의 전부였던 반면에, 『鮮英文法』에서는 19세기부터 서양에 주로 사용되었던 음성학적인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정식

적인 음성학이 영어와 한국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에 발전하였던 음성학은 주로 조음음성학(調音音聲學: articulatory phonetics) 방법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 방식은 소리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내는 소리를 발음의 특징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을 분류하였고, 이들 소리들이 어떻게 구강에서 발생되는지를 발음기관의 위치에 기초하여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음성학 저서는 자음과 모음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이고, 도표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와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H.H. Underwood도 이와 같은 음성학의 경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저술한 문법서에 영어에 존재하는 소리들을 정리하였는데, 우선 영어의 자음과 모음을 분류하여 모든 소리들의 음성표기를 소개하고, 각각의 소리가 조음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여 영어의 발음특성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자음의 경우에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조음방법과 조음위치를 도식을 통하여 예시하면서 문법서를 보는 이로 하여금 영어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면서 연습을 통하여 소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나중에 수정된 『鮮英文法』이 영어 및 한국어에 대한 음성학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은 영어문법서가 한국인에게 영어를 문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발음을 소개한 것은 영어를 설명하는 수준이 질적으로 한층 진일보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다만 여기서 주시하려는 사항은 바로 음성학 부분에서 영어의 자음과 모음을 위하여 제시된 음성기호의 근본적인 출처에 대한 의문점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H.H. Underwood가 제시한 음성기호를 비교하여 보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발음기호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저자 자신이 영어문법서에 영어음성학을 포함시킨 것이 당시 서양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음성학을 따른 것이지만, 영국 음성학 이론 흐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Daniel Jones의 *The Pronunciation of English*를 살펴보면 자음과 모음을 표기하는 음성표기와 『鮮英文法』에 제시된 음성표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6) Daniel Jones 음성표기

Underwood 방식 음성표기

a. 모음

/ɪ/: bid	/ĩ/
/ʊ/: good	/ɔ̃/
/ɛ/: bed	/ě/
/ʌ/: bud	/ũ/
/æ/: bad	/ǎ/
/i/: bead	/ē/
/u/: booted	/ū/
/e/: bayed	/ā/
/o/: bode	/ō/
/ɜ/: bird	/û/
/ɔ/ or /ɑ/: bought	/õ/
/ɑ/: body, pod, father	/ã/

b. 자음

/p/: pit	/P/
/b/: bit	/B/
/t/: tin	/T/
/d/: din	/D/
/k/: cut	/C/
/g/: gut	/G/
/tʃ/: cheap	/CH/
/dʒ/: jeep	/J/
/m/: map	/M/
/n/: nap	/N/
/ŋ/: bang	/Ng/
/f/: fat	/F/
/v/: vat	/V/
/θ/: thin	/Th/
/ð/: then	/Fh/
/s/: sap	/S/
/z/: zap	/Ş/

/ʃ/: she	/Sh/
/z/: measure	/Zh/
/x/: loch	/X/
/h/: ham	/H/
/ʌ/: whine	/Wh/
/w/: we	/W/
/ɹ/: run	/R/
/j/: yes	/Y/
/l/: left	/L/

4.2. 미국의 알파벳 철자 중심의 음성기호

일단 『鮮英文法』에 제시된 영어의 발음표시 방법에 대한 차이점은 (16)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잘 알 수 있다. 현재 음성학에서 발음을 표시하는데 토대가 되고 있는 IPA 방식은 Daniel Jones가 제시한 음성표기를 위주로 하여 설정된 것이었다. Underwood의 『鮮英文法』이 출판될 당시는 이미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였고,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도 근대방식의 음성학을 가르치고 있던 상황이었다.⁷⁾ 이와 같은 음성학 이론의 환경에서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음성기호를 저서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특이한 일이었다.

H.H. Underwood가 아버지의 저서인 『韓英文法』을 수정하던 1915년 당시는 영국에서 발전된 음성학을 기초로 한 음성기호가 이미 두루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도 영어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7) IPA에 대한 연구는 1886년 영국과 불란서의 언어교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음성기호는 Henry Sweet가 제안하였던 Romi Alphabet 체계를 토대로 하여 설정되었다. 음성기호 설정의 중요 기준은 철자모양을 따르기 보다는 음성적 표기의 목적을 위하여 영어철자체계에 존재하지 않은 기호들도 사용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표기로는 /ɔ/ /æ/ /ɪ/ /ə/ 등이 있다. 대부분의 IPA 음성기호는 1932에 결정되었고, 1989년에 많은 표기들이 수정되었다. 이후 1993년에 소폭의 수정이 다시 있었으며, 2005년도에 최종적인 수정 과정을 거쳤다.

나름대로의 음성표기 방식이 개발되어 있었다. 1877년에 ‘Scientific Alphabet’라고 불리는 음성기호 체계가 미국의 음성학 및 영어교육 관련 학자들에 의하여 음성을 표시하는 통일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음성표기가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된 음성표기 방식과 다른 점은 ‘Scientific Alphabet’은 철저하게 영어의 철자를 음성표기에 반영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유럽음성학에서는 모음의 경우에 실제 철자로 사용되던 글자 모양과 상관없이 설정된 음성기호가 상당히 많았다. 우선 유럽방식 위주의 모음 음성기호들 중에서 /ʌ/, /ʊ/, /ɛ/, /ɪ/, /æ/ 등은 실제로 영어에 사용되는 철자들과 비교해 볼 때 글자 모습에서 어떤 유사성도 찾기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음성학적으로 소리를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목적에만 국한하여 음성기호를 결정하다 보면, 학문적으로 소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주어진 음성표기들이 매우 효율적인 방향으로 소리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그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지만, 영어의 발음자체를 습득하려는 영어학습자들에게는 음성표기 자체만을 보고 발음을 인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Scientific Alphabet’이 사용되던 시절의 영어발음교육 교재와 영어사전들은 좀 더 영어철자에 가까운 음성표기 방식을 사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리게 되었다. 1889에 영어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사용되던 James H. Hoose의 저서를 보면 영어음성기호들이 영어철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영어에 나타나는 여러 소리들을 표시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⁸⁾

5. 맺음글

지금까지 영어의 철자와 발음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던 여러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여러 분야에서 철자와 발음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다루어

8) James H. Hoose, AM., PH.D.

Studies in Articulation: A Study and Drill in the Alphabetic Elements of the English Language

졌음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영어교육에 이런 사항들이 비중 있게 취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피상적으로는 영어철자 체계가 발음부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철자와 발음의 연관성이 여러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지지를 받았는가에 대하여 충분한 고찰이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철자와 발음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먼저 영어의 철자체계를 연구하였던 과거의 영어 학자들의 연구 성향을 보면서, 그들이 단순하게 철자를 특정 모습으로 고정화하려고만 노력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철자체계가 발음에 대한 정보도 아울러 포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 것에서 철자와 발음의 밀접한 관련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최근 영어교육 중에서 발음교육 방법으로 제안된 'Phonics 발음교육' 방식에서도 철자체계만을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철자에 관련된 정보를 보면서, 철자구성으로부터 발음과 밀접한 음성구성을 확인하려는 '음소인자'를 생각하는 경향이 철자와 발음의 연관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가 세계적 공용어의 준하는 위치를 보이고 있는 국제적 현실에서도 영어가 표준화 되는 과정에 철자의 고정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표준화의 시작이 곧 출판과 관련되는 상황은 영어발달사에서 출판이 철자체계를 결정하고 지속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자와 발음 관계의 중요성은 한국에 소개된 최초의 문법서 내부에 포함된 영어음성 소개 부분에도 여실히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 초 한국인들에게 영어의 발음체계를 소개하면서 음성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어 알파벳 철자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음성기호를 사용한 것은 철자와 발음의 연관성이 발음만을 중시했던 유럽 음성학 음성표기를 적용한 것보다 철자체계 자체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했음을 확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arsleff, Hans. *The Study of language in England 1780-1860*. Princeton, 1967.
- Blachman, B.A. Phonological awareness: Implications for prereading and early reading instruction. In S.A. Brady and D.P. Shankweiler. (eds.), *Phonological Processes in Literac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New Jersey, 29-36, 1991.
- Burchfield, Robert. *The English Language*. Oxford, 1985.
- Chew, Jennifer. 1997. Traditional phonics: what it is and what it is not.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20.3: 171-183.
- Crystal, David. *English Language*. Penguin, 1988.
- Dixon, M., Morag Stuart and J. Masters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onological awareness and the development of orthographic representations.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5: 295-316, 2002.
- Foorman, B.R., Dung-Tsa Chen, C. Carlson, L. Moats, D.J. Francis and J.M. Eletcher. The necessity of the alphabetic principle to phonemic awareness instruction.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6: 289-324, 2003.
- Hussey, Stanley. *The English Language: Structure and Development*. Longman, 1995.
- Jespersen, Otto. *Growth and Structure of the English Language*. Blackwell, 1956.
- Katz, L and R. Frost. The reading Process is different for different orthographies: The orthographic depth hypothesis. In R. Frost and L. Katz. (eds.), *Orthography, Phonology, Morphology and Meaning*. North-Holland, 67-84, 1992.
- Kim, Hyoung-young and Donghee Suh. *Getting Around ABC*. Seoul, 2003.
- Koda, Keiko. The role of phonemic awareness in second language reading. *Second Language Research* 14.2: 194-215, 1998.
- Ladefoged, P. *A Course in Phonetics*. Heinle & Heinle, 2001.
- Mann, V. Phonological awareness: The role of reading experience. *Cognition* 24: 65-92, 1986.
- Morais, J. Constraints on development of phonemic awareness. In S.A. Brady and D.P. Shankweiler. (eds.), *Phonological Processes in Literac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New Jersey, 5-28, 1991.
- National Reading Panel. *Teaching children to read: An evidence-based assessment of the scientific research literature on reading and its implications for reading instruction*.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0.

- Perfetti, C. A., S. Zhang and I. Berent. Reading in English and Chinese: Evidence for a “Universal” phonological principle. In R. Frost and L. Katz. (eds.), *Orthography, Phonology, Morphology and Meaning*. North-Holland, 227-248, 1992.
- Read, C., Y. Zhang, H. Nie and B. Ding. The ability to manipulate speech sounds depends on knowing alphabetic writing. *Cognition* 24: 31-44, 1986.
- Stanivich, K.E., R.F. West and A.E. Cunningham. Beyond phonological process: Print exposure and orthographic processing. In S.A. Brady and D.P. Shankweiler. (eds.), *Phonological Processes in Literac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New Jersey, 219-235, 1991.
- Underwood, H.Grant, 『韓英文法』, Kelly & Walsh, LTD., Yokohama, 1890.
- Underwood, H.Horton, 『鮮英文法』, Kelly & Walsh, LTD. Yokohama, 1914.
- 渡剖昇一, 『英語學史』, 大修館書店, 1993.
- 김형엽, 음운론에서의 음소 인지와 영어 발음 교육, 『한국어문학』, 서울, 2004.
- 김형엽 · 이현구, 『영어학습자를 위한 영어 발음지도』, 경진문화사, 2005.
- 허 응, 『국어음운론』, 정음사, 1998.

[Abstract]

Eligibility of the affinity between alphabet codes and pronunciation drills

Hyung-youb Kim
(Korea University)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matters related with the clarification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writing system and pronunciation. On the way of pursuing the research on the subject I found the fact that the same topic has been the main academic target in Korea. There have been some remarks about English

alphabets and pronunciation. Nevertheless, the relation between alphabet codes and pronunciation tokens wasn't considered as the main key to master the English pronunciation correctly and completely. As the main target of this paper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d the connection. Then, we can recognize the significant role of alphabetic structure for understanding the gist of pronunciation exercise. This paper is classified into four parts. Each part consists of the material to affirm the fact that writing system should be the inevitable equivalent of sound system, and vice versa. In the first section I show that the development of the way of pronouncing English word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endeavors of the scholars. While performing the survey of the studies about the alphabetic structure of the age many scholars found that the spelling construction was recorded without any common denominator. Thus, they not only sought to stage the bedrock for the standard written form of words but also to associate the alphabet letters with phonetic features. Secondly I mention the negative aspect of the 'only spelling based English pronunciation education' for the educational goal of 'Phonics methodology.' In this part I suggest the essentiality of phonemic properties with the phonetic prospect: phonemic awareness. Thirdly I refer to the standardization of the spelling system of English. As the realm of application of the language is extended toward the various professional areas such as commercial, scientific, and cultural spheres, it is quite natural to assume that the usage of the language will be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areas in the world. Fourthly I introduce the first English-Korean grammar book with the section of 'the introduction to English pronunciation.' At the chapter the author explained the sound features of English based on the regulation of 'Scientific Alphabet' of U.S.A. In the transcribing system all the symbols were postulated on the basis of the English alphabet form instead of the separate phonetic signs of IPA.

keywords: orthography, pronunciation, phonics, phonemic awareness, standardization, scientific alphabet

접 수 일 : 2006년 10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

재 심 사 : 2006년 11월 27일

게재결정 : 2006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